

# '강·철도 검거울 道內 2위 성과거양'

## 포천경찰서 도내 33개 경찰서 중 2위 차지

포천경찰서(서장 김귀찬)는 1월9일 포천경찰서 혁신회의실에서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치안성과분석 및 2008년도 중점추진업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07년도 5대 범죄 발생건수 등 기능별 치안종합 성과 지표에 대한 면밀 분석 및 2008년도 기초질서확립방안 등 중점추진 업무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3년 평균대비 2007년도 강·철도 검거울에서 도내 33개 경찰서 중 2위 및 교통사망사고 전년 대비 15% 감소라는 혁신적 성과를 거두어, '안전한 포천'에 한발짝 다가가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되었다.

아울러, 2008년 중점추진업무로 올 한해를 '법과질서 확립을 위한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기초질서, 공권력 확립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한편, 김귀찬 서장은 2007년도 치안성과에 전반적인 좋은 성과에 노고를 치하하고, 훈시를 통해



포천경찰서는 1월9일 포천경찰서 혁신회의실에서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치안성과분석 및 2008년도 중점추진업무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8년도 중점추진업무를 빨리 시작한 만큼 작년 한해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 같이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

### 추천! 이야기 한마당

### 자칭 무식한 부부



이보용 본지지문위원

내 남편은 건설 현장 근로자다. 말로는 다들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지 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세월 노가다 라는 직업을 가진 남자를 남편으로 둔 나는 그가 하는 일을 땀이 뻘뻘하지 못하고 어쩌다 친정엘 가도 풀이 죽는데, "남들은 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할까"하는 마음에 가끔 길을 가다가도 신중 중건 건설현장을 보게 되면 걸음을 멈추고 "내 남편도 저렇게 일하겠지"하는 생각에 눈시울을 적시곤 한다.

며칠 전 남편이 좋아하는 우렁이를 사려고 시장엘 갔다. 우렁이를 사고 막 돌아서려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온 듯한 남자 둘이서 토시를 가리키면서 "이거 얼마예요?"하고 서투른 우리말로 물어 보는 게 아닌가.

아줌마가 천원이라고 답하자 그 두 사람은 자기네 말로 뭐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다. 아야 비싸다는 표정인 거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선풍한 두 사람을 보고 이국 땅에 와 천대받으면서 일하는 외국 근로자의 입장을 생각했고 또한 힘들게 일하는 내 남편이 잠깐이나마 그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은 햇빛이 따갑게 내리갈래 널었던 이불을 걸으러 욕실이 울려댔다. 거실로 하하를 보는데 "화인건설"이라고 쓰여진 콘크리트가 눈에 띄었다.

언젠가 남편이 일하는 곳을 알려준 적이 있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일하고 있는

현장인 거 같아 나는 열심히 그 콘크리트 밑으로 남편 옷 색깔을 찾아보았다.

이 조그맣게 남편이 보였다. 위험한 난간에서 나무 기둥을 붙들고 왔다갔다 하면서 담치로 못을 치고 있었다. 탕! 탕! 못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나는 울고 말았다. 왜 내 남편은 더운 날 저렇게 땀방울이 맺혀서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별일 다 보겠다는 표정이다.

나는 다리를 주무르면서 "당신 오늘 6층에서 일했죠?" "어, 어떻게 알았어?" 했다.

"오늘 이불 걸다가 봤어요. 우리 욕실에서 바라보면 왼쪽 끝에서 일했죠?" 했더니 "응" 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마도 자기가 고생하는 걸 내가 본 게 못마땅한 것 같았다. "냉커피 한잔 드릴까요?" 했더니 "아 타주면 잘 먹지" 한다.

사실 남편이 저녁 늦게 커피를 부탁하면 거절했었다. 그다지 커피를 즐기는 편이 아니어서 밤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는 편이기 때문이다.

언제인가 밤에 커피를 마신 뒤 새벽까지 뒤척이더니 일 나갔다기 어렵다가 그냥 집에 온 적이 있는 뒤부터 나는 피도 늦은 커피는 타주지 않는다.

내 마음을 아는 남편은 "내일 일 못 나가면 어쩌려고 커피를 타주지"했다. "아유 뭐 어때요 하루 쉬면 되지 뭐" 했더니 남편은 빙긋 웃으면서 "우리 블랙 커피 한번 마셔 볼까?"하고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었다.

"테레비 같은 데서 블랙 커피 마시는 사람들 보니까 유식해 보이더라."

나는 웃음을 참으면서 정말로 설탕과 프림을 빼고 남편에게 블랙 커피를 내밀었더니 한 모금 마신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아유, 무식한 게 차라리 낫겠다. 못 마시겠다. 우리 무식하고 말자"하는 게 아닌가.

하긴 블랙 커피를 마신다고 모두 유식하면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부부는 무식할 정도로 큰 소리로 웃었다.

잡자리에 누운 남편은 "당신 이번에 돈 나오면 바지 하나 사입어. 거 왜 당신이 옷을 안 바꾸리는 거야? 옆집 진영이 얼마같이 아들아들만 바지 하나 사입어"했다.

"잠 누구 못 사 입어서 안 입는 줄 아세요? 당신 땀방울이 땀 흘리면 뽀뽀로 어떻게 비싼 옷을 사 입어요?" 했더니 "다 당신하고 윤정이 위해 일하는데 뭘 그래. 이번 달에 사입어 파마도 좀 하고"나는 그만 목이 메었다. 그런 걸 행복이라고 말해도 좋을지라.

지체 높은인 사모님 소릴 못 들 어도 어떤 비싼 보석 같은 게 아니라도 잠깐씩 이렇게 느껴지는 걸 행복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가끔 남편은 돈 많은 부도 못 만나 배우지 못해서 천대받는 세상이 원망스럽다고 울분을 토한 적이 있다.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나 또한 남편의 직업에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렇게 오늘날이 잠깐씩 느끼는 감사함으로 남편 직업에 대한 회의를 잊고 깊은 행복감이 젖어 든다.

아, 내일 남편의 점심 반찬을 무엇으로 해 드릴까?

자칭 무식한 우리 부부의 초여름 밤은 시원하게 깊어 간다.

(문의 011-342-5834)

## 가로환경미화원 순환배치

### 포천시, 미화원 평가 실시 인센티브 제공

포천시는 지난 1월 2일 포천시 가로환경미화원 24명에 대한 인사(순환배치)를 단행했다.

이날 순환배치는 38.5대 1의 공개경쟁을 거쳐 채용된 4명에 대한 임용장 교부와 함께 이루어졌다.

가로환경미화원 순환배치는 포천시에서 2007년도부터 추진한 가로환경미화원 실명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행됐으며, 이를 위해 이날 미화원 각 개인에게 손수레를 지급

하기도 했다.

포천시는 작년 1월부터 가로환경미화원 실명제를 전면 시행하여 미화원 1인당 1일 3.6km 작업구간을 지정, 실행하고 있어 가로환경미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윤길현 전 환경자원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부터는 가로환경미화원 실명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행됐으며, 이를 위해 이날 미화원 각 개인에게 손수레를 지급

하승만 기자 forme65@paran.com

## 포천에 3천760만원 지원 결정

### 포천예술제 600만원, 이해조문학회 200만원 등 9개단체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은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일반공모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분야 선정자로 포천시 9개 단체에 모두 3천76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포천시에서는 모두 13건에 1억3천800만원을 신청했는데 심사결과 9개 단체에 3천760만원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지원단체 및 행사명과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마당극 배비장전 극단한내(한내관) 400만원 ▶제3회

포천별곡 영평팔경가 사)경기소리 보존회포천지부(박영실) 600만원 ▶소리 그리고 몸짓 II 사)무용협회포천지부(한동업) 560만원 ▶포천문화제 제10집 출판 사)문인협회포천지부(이재욱) 300만원 ▶제5회 포천현대미술제 사)미술협회포천지부(이경진) 500만원 ▶포천예술제 사)예총포천지부(이희용) 600만원 ▶이해조문학회 이해조문학회(김성열) 200만원 ▶제9회 정교회 원전 포천사건연구회(박병선) 300만원 ▶제15회 정기연주회 포천시 마늘남성합창단(최치선) 300만원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전역 앞둔 장병 휴가중 태안에서 자원봉사

### 육군 8사단 예하 청솔부대 손성걸·박금식·김재련 병장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의 방제작업을 위해 전 국민의 자원봉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역(23) 예비역 병장, 세 명은 같은 세대 소속 부대장으로 평소에도 뜻이 잘 맞아 절친하게 지내던 중 언론을 통해 태안반도 원유 유출 사고를 접하고 방제작업에 동참하고자 결심했다.

전역 후에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신분을 마치 막까지 소임을 다하는 것이 더욱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 손 병장은, 박 병장과 김 병장에게 전역 전 마지막 휴가(병장 정기휴가)때 함께 봉사활동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나머지 두 명도 흔쾌히 동의하여 함께 휴가일정을 맞췄다.

휴가를 떠난 손 병장 일행은 방

제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한 인터넷 봉사활동 동호회에서 천수만으로 방제작업을 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다.

열심히 방제작업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손 병장 일행의 선행은 전역하는 날 지휘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세



회제의 주인공인 김재련(왼쪽) 박금식(중간) 손성걸(오른쪽) 병장(좌로부터)

명은 잠시 쉬었던 화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다.

손성걸 예비역 병장(23)은 "당시 군인의 신분으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며, 앞으로도 군대에서 배운대로 항상 이웃을 위해 힘을 보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설탕이 안전식품

### 공급 위한 성수식품 등 특별단속 실시

포천시는 고유 명칭인 설을 맞아 제수용·선물용 식품과 인삼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고자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설을 맞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판매의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무신고영업행위, 부적절한 원료사용, 유통기한을 연장하거나 변조·위조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부적합우려가 있는 식품과 다소비 되는 한과류 제품은 현장에서 수거하여 검사되되 하며, 현장에서 영업자와 종사원에게 불량식품이 제조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위생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성묘객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위하여 성묘지역 및 국도변휴게소 등에 소재한 음식점과 식품판매점의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 단속을 강화하고 화장실을 청결하게 청소하는 등 위생 관리 및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단속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1월 7일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과 합동으로 감시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 2008년 포천시 노인보건사업 발표

###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레크댄스 교실 등

포천시 보건소는 2008년도 노인 보건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증가하는 노령인구에 필요한 건강서비스 제공 및 보건교육으로 어르신들이 활기찬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기력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에게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노후 여가활동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신체적, 정신적 기능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추진내용으로는 1월 7일부터 1월 말까지 만65세 이상 어르신

을 대상으로 '어르신 푸른 대학'을 운영하여 건강기초검진 및 건강관리, 보건교육을 비롯해 균형감각증진과 관절기능보완 증진을 위한 실버댄스 교실, 고전무용교실을 운영한다.

또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으로 멧돌체조교실을 운영하며 폐 기능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웃음치료, 레크댄스교실을 마련했다.

그밖에 소홀을 보건지소에서는 12월까지 주 2회 민요교실을, 이곡 보건지소와 정교리 보건지소에서는 3월까지 멧돌체조교실을, 중리 보건지소에서는 민요 및 멧돌체조교실을 운영한다.

시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관내 노인들의 건강과 인지능력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으로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경로당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31)538-3531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경기도교육청 3급 공무원 승진인사 발표

### 지원국장 신승찬·제2청 기획관리국장 김동수



신승찬 김동수

장 직급이 현재 국가직 4급에서 지방직 3급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교육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경기교육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신승찬 지원국장과 김동수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이 각각 승진임용 되었다.

신승찬(59) 지원국장은 경북 영양 출신으로 영남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997년5월 5급으로 교육계에 입문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교육청 총무과장으로 근무 중 4급으로 승진했으며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동수(59) 제2청 지원관리국장은 경기도 광주출신으로 광주 종합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983년 5급으로 입문해 연천·의정부·양평·평택교육청에서 관리과장을 역임하고 4급으로 승진해 부천교육청 관리국장,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장을 거쳐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포천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포천시에서는 지난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포천시에서는 지난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겨울철 내집앞·내점포 눈 치우기 홍보를 범시민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속에 재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민 스스로의 참여분위기 조성 등 안전한 사회정착에 중점을 두고 시민안전봉사대원등 30여명이 참여, 포천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가우 캠페인 등 전개와 더불어 전단지등을 나누어 주는 활동을 병행,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했다.

하승만 기자 forme65@paran.com